

국내 웰에이징 연구에 대한 통합적 문헌고찰

김두리¹, 강경희², 박아르마³, 이종형⁴, 김광환⁴

¹건양대학교 간호학과, ²건양대학교 치위생학과, ³건양대학교 휴머니티칼리지,

⁴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e-mail:kkh@konyang.ac.kr

An Integrative Review of Well-aging research in Korea

Doo Ree Kim¹, Kyung Hee Kang², Arma Park³, Chong Hyung Lee⁴, Kwang Hwan Kim⁴

¹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onyang University

³College of Humanity, Konyang University

⁴Department of Hospital Management, Ko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국내에서 진행된 웰에이징 관련 연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웰에이징 개념정의의 분석함으로써 추후, 국내 웰에이징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으로는 Whittemore & Knafl가 제시한 통합적 문헌고찰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국내에서 진행된 웰에이징 연구에 대한 연구설계는 문헌고찰, 사례연구, 질적연구가 각각 2편이었으며, 조사연구 3편, 실험연구 2편으로 총 11편이었다. 또한 2017년 이전 연구 3편, 이후 연구 8편이었으며, 학위논문이 2편, 학술지 게재논문이 9편이었고,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웰에이징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총 11편의 연구에서 웰에이징에 대해 각각 정의하고 있었으며 웰에이징을 위한 정의에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아실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웰에이징 준비를 위해서는 노년기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에 따른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웰에이징 연구가 다양한 연구설계로 더 넓은 학문분야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방법

1. 서론

초고령사회를 25년 앞둔 현재 노인들은 건강기대수명 즉,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강과 노화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이란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1]. 즉, 이는 단순히 건강이라는 것이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닌 보다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의 전반적인 안녕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진행된 웰에이징 관련 연구의 특징과, 각 연구에서 사용된 웰에이징의 개념정의를 분석함으로써 공통된 정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추후, 국내에서의 웰에이징 연구 진행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2.1 연구절차

본 연구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웰에이징 관련 논문을 분석하기 위해 Whittemore와 Knafl이 제시한 통합적 문헌고찰 방법을 활용하였다[2]. 이에 본 연구의 진행 과정은 문제규정, 문헌검색, 문헌평가, 문헌분석, 문헌제시 등 5단계를 차례로 진행하였다.

2.1 문헌검색 전략

본 연구에서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웰에이징 관련 연구를 검색하기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4U), 한국학술정보(KISS) 검색엔진을 통해 ‘웰에이징’, ‘에이징웰’의 검색어로 검색하였으며, 논문의 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로 그 결과 중복논문 3편을 제외하고, 최종 11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본 연구팀은 최종분석을 위한 논문 확인을 위해 검색된 총 11편의 논문의 초록을 검토하였으며, 초록 검토가 이루어진 웰에이징 관련 모

든 논문을 분석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종 11편의 분석 문헌이 선정되었다.

2.2.4 문헌분석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문제규명에 맞추어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형식을 나누어 문헌을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저자(년), 연구목적, 연구설계, 연구결과로 분석하였으며, 두 번째 웰에이징의 개념정의 분석을 위해 저자(년), 연구에서의 웰에이징의 정의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국내 웰에이징 관련 연구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접어든 2017년을 기준으로 전, 후 웰에이징 관련 연구를 살펴본 결과 2017년 이전에 3편(27.3%), 이후 8편(72.7%)으로 나타났다. 논문형식으로는 학위논문이 2편(18.2%),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이 9편(81.8%)이었으며, 웰에이징 연구가 진행된 학문 분야는 인문학, 심리학, 경영학, 교육학, 간호학, 건축학, 보건학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haracteristics of research

(n=11)

Item	Categories	n(%)
Year	Before 2017 yr	3(27.3)
	After 2017 yr	8(72.7)
Type of article	Thesis	2(18.2)
	Journal	9(81.8)
Field of study	Humanities	1(9.1)
	Psychology	1(9.1)
	Business administration	2(18.2)
	Pedagogy	2(18.2)
	Nursing science	1(9.1)
	Architectural science	2(18.2)
	Health science	2(18.2)

3.1 국내에서 진행된 웰에이징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를 연구설계 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웰에이징 관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 웰에이징에 대한 첫 번째 연구설계로는 담론으로 이루어진 2편의 논문이 있었다. 김경호의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유학자였던 장현광을 통한 웰에이징 성찰이 수행되었으며, 성찰 결과 노년기는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하며, 자신을 완성해가는 단계로 ‘웰에이징’이란 자신의 노년을 존엄한 존재로 인식하고, 자신을 재발견하며

자아를 실현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3]. 김명식의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나이 위계와 웰에이징에 대한 내용이 분석되었다[4].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분석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현재 국내 65세 이상 노인들은 아직 웰에이징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았으며, 자신과 관련된 웰에이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다. 따라서 웰에이징을 위한 행동에 대해 실천하거나 깊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웰에이징을 위한 조건을 생각해 본다면 신체적·정서적 건강, 경제적인 독립과 여가활동, 의미 있는 사회활동(봉사활동), 직업(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웰에이징의 필수요소로 경제적 자립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최근 액티브 시니어가 강조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NRF-2020S1A5C2A04092504) 지원을 받아 한국산학기술학회지[2021년3월(22권3호)]에 발간된 논문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연구는 전체회원들에게 연구내용 공유 이외는 연구자 개인 실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References

- [1] WHO, The Ottawa Charter for Health Promotion. https://www.euro.who.int/_data/assets/pdf_file/0004/129532/Ottawa_Charter.pdf.
- [2] R. Whittmore, K. Knafl, “The integrative review: Updated methodolog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52, No.5, pp.546-553, 2005.
- [3] K. H. Kim, “Well-Aging: the Yeoheon Jang Hyun Kwang’s meditation on the old age”, *The Study of the Eastern Classic*. Vol.49, pp.109-136, 2012.
- [4] M. S. Kim, “Well-aging and Age Hierarchy”, *Studies on Life and Culture*, Vol.51, No.-, pp.81-99, 2019.